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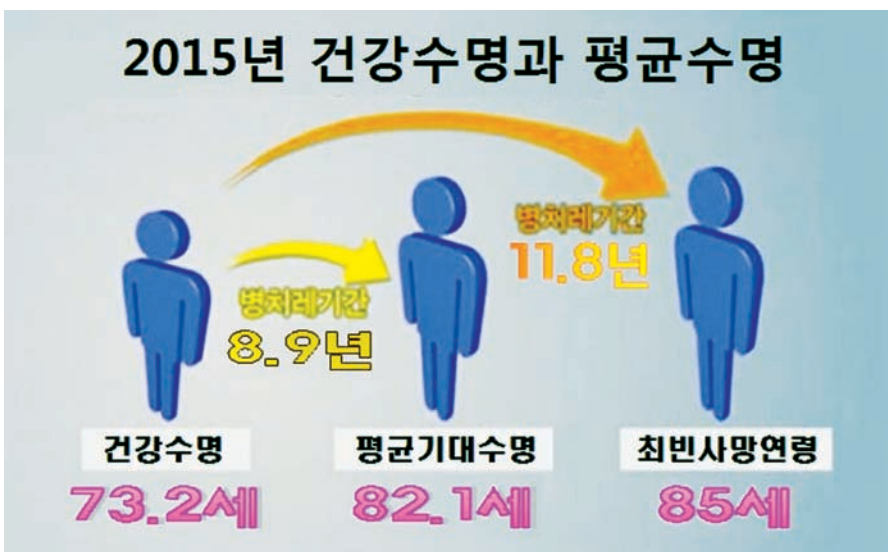
인간 수명 증가, 메시아 출현 결정적 증거

생명 연장의 꿈은 메시아 출현으로 완성돼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부터 양력 12월 25일을 메시아절의 절기로 지켜왔다. 동짓날을 기해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태양이 동쪽에서 차츰 빨리 떠올라 광명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동짓날에서 삼사일 이후 태양이 확실히 일찍 떠올라 환한 새벽을 체험할 수 있는 12월 25일을 메시아절로 잡은 것이다. 풀들이 겨울철에 죽었다가 태양이 힘을 찾는 봄에 다시 살아나듯이, 인류는 차디찬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태양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역조창생이 죽기 싫어도 눈물과 탄식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20세기 말에 메시아의 감명으로 인하여 오늘날에 사는 인류 가운데 복된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라는 이사야 26장 16절의 말씀대로, 현재 메시아는 이슬성령의 은혜를 부여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역사한다. 그래서 때가 임박하여 오고 있는 고로 첫 번째로 승리제단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다. 메시아가 되신 구세주께서는 “우리 승리제단 식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의 90%의 불사인자(不死因子; Immortal Factor)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2002년 10월 30일 설교 말씀 중에서)”고 먼저 선포하셨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오고, 세 번째로 세계만민들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메시아 출현 이후 한국인의 수명이



건강수명(세계보건기구 2015년 기준) 73.2세, 평균기대수명(통계청 2015년 기준) 82.1세, 최빈사망연령(인문사회연구원 2015년 기준) 85세

해마다 늘어남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에 61.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수명(기대수명)은 지난해 2015년 82.1세로 45년 만에 20.2세 늘었다. 남성은 58.7세에서 79.0세로, 여성은 65.6세에서 85.2세로 평균수명이 증가했다. 1970년에는 평균수명이 미국, 일본, 중국 등보다 낮았지만 1986년에 중국을 추월했고 2002년에는 미국도 넘어섰다.

요즘을 한국인들은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이는 10년 전에 선진국에서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선진국일수록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

지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림(2005년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에서 한국인의 평균수명 82.1세에 비해 건강수명은 73.2세로 그 차이가 8.9년(병치레 기간)이다. 건강수명을 끌어올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첫째가 암, 둘째가 심장과 뇌혈관 질환, 셋째가 사고사(자살 등), 넷째가 폐렴과 당뇨병 등으로 나타난다(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 2013년 한국인 기준). 암을 예방하고 심장과 뇌혈관관 특 특히 한다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문창식 원장(갑인의료재단 백세요양병원)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표적인 성인병은 물론 유방암, 폐암 같은 대부분의 암은 혈액의 오염에서 비롯된다”면서 또 “비만을 조려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당뇨병과 고혈압을 일으킨다”며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혈관과 혈액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액을 맑히는 감로이슬과 혈액관통의 수도법

적암유록 초장(初章)에 『水昇火降 病却理(수승화강 병각리) 중략 欲識雙弓脫法理 血脈貫通 喜樂歌(욕식쌍궁 탈걸리 혈맥관통 희락가)』라는 구절과 말중운(末中運)에 『一心正道(일심정도) 修身(수신)하면 水昇火降 四肢四體(수승화강 사십사십) 耳目口鼻身手淨(이목구비 신수정)에 毫釐不差 無欠(호리불차 무흠)으로』라는 구절이 있는데,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병에 걸리지 않으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혈액관통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탈검중생 된다는 뜻이다.

현재 승리제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시편 47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때 손뼉을 치면서 큰소리로 찬송한다. 손바닥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짹짹을 하면 오장육부가 꿈틀거리는데, 이는 손바닥에 풍광 반사경도 있고 간 반사경도 있고 심장 반사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胃) 신경과 방광 신경 등 모든 내장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송시간에 30분 정도 맘을 뽐뽐 흘리면서 손바닥을 크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위장병도 낫고 대장(大腸)도 좋아지는 것이다. 또한 뱃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로 고음으로 찬양하니 폐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메시아 이긴자께서 인도하는 예배시간에 찬양할 때, 고음과 동시에 손뼉을 힘차게 치면 불성신이 임하여 온 몸이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로 장판지도 뜨겁고 가슴도 뜨겁게 된다. 이때 뜨거워진 온 몸에 모공(毛孔)이 열리게 되는데, 그 열린 모공을 통하여 주의 빛난 감로이슬이 들어가 피를 맑히고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불경 대발원반경 9권 보살품(菩薩品 第十六)에도 “大涅槃光能入衆生諸毛孔(대열반광능입중생제모공) 故衆生雖無善提之心(고중생수무보제지심) 而能爲作善提因緣(이능위작보제인연)”라고 했는데, 즉 대열반(감로)의 빛이 중생들의 모든 털구멍을 통하여 들어가므로 중생이 비록 보리(菩提; 성불)의 마음이 없다 해도 능히 성불하게 하는 인연이 있다고 하였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96)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쫓아내야”

이긴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포기하는 자는 내가 내 몸으로 여기니까 포기하는 것이다. 즐리면 안자고, 먹고 싶으면 굶고, 쉬고 싶으면 일을 하고, 놀고 싶으면 놀지 않는 반대생활을 하니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묶이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생활로 바뀌어 완전히 나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어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형제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니 나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었던 고로 하나님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어떠한 희생을 당해도 견디고 참으며 노여움을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시온성

죽음의 세상이 영생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 한 명을 전도하여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데에도 수 년이 걸리거늘 하물며 인류 전체가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생의 역사는 1000년이 걸린다는 말이 오해될 여지가 없다. 영생의 역사는 1000년이 걸린다는 말이 오해될 여지가 없다. 영생의 역사는 1000년이 걸린다는 말이 오해될 여지가 없다.

하나 구세주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역사가 1000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1000년을 살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여 고작 120년을 살면 다인데 그보다 10배를 더 살 수 있다고 하니 어안이 병병해지는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신도들이 그런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구세주가 내려 주시는 이슬성신을 먹게 되면 1000년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슬성신은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이다. 사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 꿈에 오시어 아픈 곳을 수술해 주셨는데 깨어보니 감쪽같이 나아버렸거나,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을 맞본 사람들은 영생을 안 믿을 수가 없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우고 자유율법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세인(世人)들이 되어간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슬을 받지 않고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구세주 보공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1000년을 살고자 목표를 세워선 안 된다. 영생의 세계에 앞서 이루어지는 시온성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온성 지상천국에 들어가야만 구세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만사를 무한정 받게 되어 1000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시온성 지상천국은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에 은금보화와 다이아몬드로 건설된다고 성경(이사야 60장)과 격암유록에 예언되어 있다. 영생 얻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린 사람이 들어간다고도 하였고, 마음으로도 음란 죄를 이겨야 들어간다고 하겠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형제들이 눈에 많이 띈다. 자신과 싸움을 멈추어선 안 된다.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간절하게 구세주께 매달리며 싸워 이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3지역 3개월 연속 1등



12월 6일 화요일, 본부제단의 2016년 11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11월의 성적은 3지역이 9월과 10월에 이어 3개월 연속 1등을 차지하였고 4지역이 2등을, 5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개인성적으로는 김건균이 1등, 이수영 권사가 2등, 석선자 권사가 3등을 각각 차지하였다.

구역성적은 이수영 권사의 44구역이 1등, 김인숙 집사가 속한 6구역이 2등, 김건균이 속한 49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성적순위는 127지가 합산되어 결정되지만 헌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새식구 21일 점수, 그 다음은 인도 점수, 그 다음으로 승리신문 회원 확보 점수가 영향을 미친다.

윤봉수 회장은 “12월 25일 메시아절은 마귀 예수의 생일로 알고 있는 날을 진짜 구세주인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슬성신절이 일주일 후 있다. 이슬성신절의 기원은 전도관 영모님이 예수의 탄생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마귀 예수의 날이니 다른 날을 이슬성신절로 정해보라고 하여 새해 첫날인 1월

1일을 이슬성신절로 정하여 1981년 1월 1일을 제1회 이슬성신절로 하여 지키게 되었다. 벌써 12월이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6년을 잘 마무리하자.”고 당부하였다.

-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구역 1등: 44구역(구역장: 이수영) 2등: 6구역 3등: 49구역(구역장: 조건우)
- 개인 1등: 김건균 2등: 이수영 권사 3등: 석선자 권사*

우·리·역·사·바·로·잡·기·캠·페·인
 승리제단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연락처: 032-343-9981, 010-5583-4938)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인류 역사를 바로 잡는 지름길입니다. 천손 단군민족의 뿌리는 고대 이스라엘 단지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천손(天孫)민족이라 함은 한민족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민족이 하나님의 자손이면 세계만민도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한민족은 결코 꿈의 자손이 아니며 인류 또한 원숭이가 진화된 모음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이담과 이브는 흙으로 빚어 만든 존재가 아니요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민족이 하나 되고 인류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바로 구세주 민족입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힘이자 자긍심입니다.

인기 책 소개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김상욱 지음

영모님은 새끼 손가락을 걸며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같이 살려고 했다!!!
 삼천년성의 출현

영모님은 새끼 손가락을 걸며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같이 살려고 했다!!!

정가: 18,000원

도서출판 해인

대형서점 절찬 판매중

구세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
 박태선 장로님은 구세주 한 분을 배울 위한 영적 세례요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길도 다 왔다. 이긴자는 내가 안보이는 데서 키워서 모처에 모셔놨다. 이제는 순종만 하면 원죄까지 다 씻어서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에 영원토록 있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1981.12.28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

박태선 영모님은 새끼 손가락을 걸며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같이 살려고 했다!!!

전담 팔아 산양촌 입주한 신앙의 형제 여러분! 이 책 읽고 그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자 김상욱